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1996년도

각 부서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11월 12일까지 제출해야, 교회학교 20%, 기타 10% 증가율 인정

교회는 1996년도를 계획하며 우선 새해 각 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19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교회의 회계제도가 일원화되어 있고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 사업 및 예산서가 확정된 후에는 신규사업의 추가 혹은 추가예산 증액, 지원 등이 어렵고 이런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에 특별청원에 의해서 처리되기에 각 부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각 부서에서 교회의 5대 목표 달성을 염

두에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목표에 접근하는 방향하에 작성해야 한다.

또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바른 평가를 통해 내년도에도 계속할 사업인가를 결정하고 또한 신규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예산편성시 물가 기준은 96공통적용 단가표(교회 작성)에 의하여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총 예산의 증가율도 교회학교는 20%, 기타는 10% 이내로 하게 된다. 또한 인원 기준은 1996년도 인원기준표에 의하여 사업실시 후의 인원증가는 그 증가된 인원만큼 추가정산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교회학교중 중등1부 ~ 청년2부, 새가정부는 면려회 사업 및 예산서를 별

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컴퓨터로 작성시는 <F:\96BUDGET\DOWN\>에 있는 각 부서의 파일을 본인의 작업 디렉토리에 복사하여 입력하고 완성된 파일을 <F:\96BUDGET\UP\> 디렉토리에 같은 방법으로 저장한다. 이 때 부서장 명의의 프린터물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수기로 할 경우에는 별첨한 양식에 변경된 내용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95. 10. 8 / 96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지침 통보와 제출의뢰

11. 12 / 제출마감

12. 6 / 당회승인

12. 31 / 제직회 승인

1996. 1. 7 / 공동의회 승인

이에 대한 문의 및 서류 제출처는 기획실(선교관 302호, 교환 430번)로 하면 된다.

제9대 안수집사 장립 및 제37대 권사 취임 예배

10월 18일(수), 오후 7시에

교회는 오는 10월 18일(수), 수요일 부 예배시(오후 7시)에 제9대 안수집사 장립 및 제37대 권사 취임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모든 순서를 확정했다.

이번에 장립을 받게 될 안수집사는 40명, 취임하게 될 권사는 66명으로 이들은 지난 3월 19일에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로 피택되었고 6개월간의 철저한 교육과 당회에서 실시한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날 예배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사회, 중경노회장 예종탁 목사의 설교, 당회서기 우기전 장로의 기도, 노회장 권회정 목사가 임직자에게 권면, 노회서기 김종학 목사가 교우에게 권면, 중경노회장 원사연 목사가 축사, 김창인 원로 목사가 축도하게 된다.

컴세미나를 하나님의 은혜중에 마치고

강 순 용(장로, 컴세미나 준비위원장)



금번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회교권에 생명바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보내주시셔서 저들이 한국의 교회성장과 부흥을 보며 배우고 느끼면서 큰 도전을 받았으며 자기들도 고국에 가서 회교권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과 각오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가 넘도록 통회의 눈물과 한국교회와의 유대와 자기나라에서의 전도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한국의 총신대학을 방문하여 채플시간에 같이 참석하여 현지에서 오신 E.L. Henawis 목사님의 설교와 채플시간이 끝난 후에는 회교권(애굽, 수단, 터키)에 선교지망과 관심있는 학생들과 진지한 토론도 가졌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에 있는 신학대학원도 방문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회를 연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도 보고 배웠습니다. 또 한국기독교 100주년 협의회에서 마련된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의 절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뜨거운 피를 쏟고 순교한 희생의 열매인 것을 한층 더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고해 주신 강사 목사님들의 뜨거운 강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었고 강의가 끝남을 아쉬워했습니다. 또 끝난 후 질문이 많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약간의 불편이 있었으나 여러 목사님들의 자상한 섬김과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통역자를 보내주시셔서 금번 컴세미나 행사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금번 우리 교회가 많은 정성과 기도로 준비된 컴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저들이 순간순간 감회와 통탄하는 것을 보면서 충현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명성교회에 새벽 3부 6시 예배도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아침 식사대접도 받고 감사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방문하여 안내도 받고 점심대접도 하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중에 시작하여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교역자님들과 여러 장로님들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권사회와 구역의 여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의 정성어린 예배와 선물을 통해서 저들이 감명깊이 받은 은혜는 일생을 잊지 못하여 고국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겠다는 다짐들을 하였습니다. 봉사와 안내에 수고하신 루디아 여전도회와 전도사님, 푸짐한 봉사와 정성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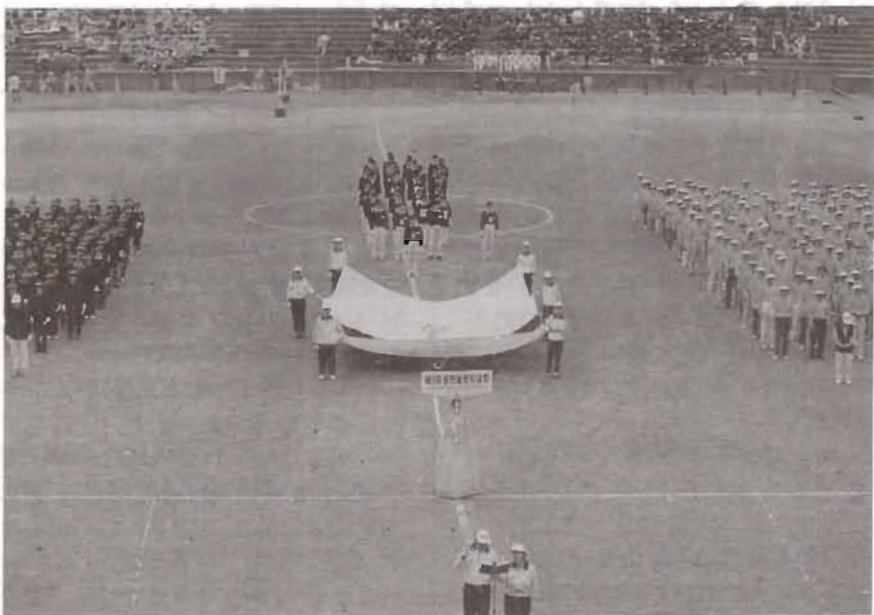
특별히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신 식당의 집사님들과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신 분들과 그 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말없이 봉사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례위원 수련회

10월 9, 10일 양일간

예배위원회에서는 성례위원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오는 10월 9, 10일 양일간 육군 22사단 수련장에서 개최한다. 인원은 약 40명, 강사는 최순복 전도사.

성례위원은 1년에 4차례 실시하는 성례식에 필요한 포도즙과 떡을 준비하고 그것을 성찬식에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한다.



제5회 충현올림픽 모두 마쳐 지난 10월 3일(화)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제5회 충현올림픽이 열렸다. 오전 8시 30분부터 모여 오전 9시에 개회예배, 이어서 입장식 순으로 진행된 올림픽은 오후 4시에 모두 끝났다. 전 교구를 4개 팀(믿음, 소망, 사랑, 충성)으로 나누어 각종 경기 및 게임을 실시한 이날 올림픽은 알맞게 비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흥겹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정확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 성의있는 진행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된 올림픽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형성했음을 전하게 느끼는 하루가 되었다.



충현강단

사편 강해 7

공의를 구하는 기도

(시 7:1-17)

1. 본문의 배경과 내용 요약

그 당시 베냐민 사람 가운데 구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왕권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다고 하면서 다윗을 중상모략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꿈에도 가진 적이 없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이러한 중상모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직장 그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형편이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 당시 그는 얼마나 위급했는지 하나님밖에는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편 7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역울함을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악인의 운명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매일 분노하시니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2. 역울함을 호소하는 다윗

(1) 역울함을 당하고 위태로울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주께 피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주님께 피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보호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윌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의 원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2절 하반절에 "제회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같이 찢고 뜯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바로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찢고 뜯으려고 덤벼드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3) 그 당시에 구시가 다윗을 중상모략한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의 고발은 다윗이 왕국을 탐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손에 죄악이 있다, 즉 다윗은 항상 검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올 때에 사울왕을 죽이려는 암살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구시는 다윗을 중상모략했습니다. 셋째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은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넷째는 무고히 빼앗은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착취하고 빼앗은 사람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다윗을 중상모략했습니다.

(4) 다윗은 이러한 역울한 사정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아마 우리 같으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과 형제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정말 역울하다고,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여기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 좌석에 오른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깨어 계셔서 불꽃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시 121:4).

중요한 것은 그때의 다윗에게는 원수를 갚을 만한 힘이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은 자를 내 손으로 파멸시킬 수는 없다고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다보면 경쟁 관계가 있는 직장 때문에, 또 정치적인 면에서 정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도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롬 12:19)고 말씀합니다. 역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부도덕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셔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노'라는 것은 '터져서 흘러 넘치는 노'라고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했습니다. 7절을 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터져서 흘러 넘치는 진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를 견디지 못해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는 말은 심판 좌석에 오른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깨어 계셔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다(마 25:32).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니까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를 두른다는 말은 주님을 가운데 세우고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둘러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심이 되면 안됩니다.

3. 하나님의 의와 악인의 운명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패는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눈동자같이, 암담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과 같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둘째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주십니다. 세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롭지 못한 재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정론을 가지고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네번째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마지막 흰 보좌 앞에서의 확실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도 매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 어떤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로 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시며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도 하나님을 대위하는 자에게 보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칼을 갈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죽일 기계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

습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세번째로 악인들은 죄악을 해산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함이며 잔해를 잉태하여 궤를 낳았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을 낳고 팔을 심으면 팔을 낳듯이 악인은 항상 죄악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결국은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3) 다윗의 감사와 찬양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경배와 찬양으로 끝나야 해요. 감사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없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에는 언제나 마음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 입으로, 물질로, 봉사로 표현해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언제나 찬양을 동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 나그네요,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끝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상모략으로 도망을 가면서 드려진 다윗의 기도는 며칠 안가서 임금으로 영광을 누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을 괴롭히던 사울 왕의 가문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꾀악 속에서도 인내로써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미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5회 충현올림픽에 참가하고 나서



“하나된 어울림”

이준우
(강도사, 예바다부 지도)

다 소 곳은 날씨인데도 예바다부 농아인 성도들은 참 많이 모였다. 100여명의 농아인들과 20여명의 예바다부 교사들이 소망팀의 한 일원으로 자리를 잡고 스탠드에 앉았을 때, 우리 예바다부도 이제 충현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감사했다.

어린 농아아이부터 나이 많은 농아장년까지 하나가 되어 건청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수화로 응원하고 찬송하며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진정한 어울림과 하나됨의 진수였다.

사실 충현올림픽에 오기 전 걱정을 많이 하였다. 원래 예바다부가 참석할 경기는 '지경 넓히기' 하나 뿐이었다. 그래서 걱정을 한 것이다. 그 긴 올림픽 시간동안 응원만 하면서 어떻게 보내나. 전날까지도 내 머리속을 맴돌던 걱정이었다.

그러나 이런 우리는 올림픽 시작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첫 경기부터 소망팀의 경기운영진들은 예바다부의 농아인들을 선수로 요청해 왔고, 우리 농아인들은 나가서 선전하였다. 우리 농아인들은 들을 수만 없을 뿐이지, 건강에는 지장이 없고, 활동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사회는 농아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취급하곤 한다.

그러기에 우리 농아인들을 믿어주고 선수로 선발해 주신 충현교회 성도들의 장애인 인식에 자랑스러웠고, 그만큼 감사했다. 거의 매 경기마다 농아인들은 참여했고, 응원도 그만큼 신이나게 하였다. 충현올림픽은 구경을 위한 잔치가 더 이상 아니었다. 바로 충현올림픽은 예바다부를 위한 잔치였고, 이는 또한 모든 성도들의 잔치였다.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없이 서로 믿고 도우며 사는게 아닐까? '농아인이기에 못할까야, 장애인이니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한 번 믿어보고 기회를 주자"가 하나됨의 시작인 것이다.

6명이 한조가 되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발을 고리로 채워 발맞춰 뛰는 경기가 처음에 있었다. 8조가 한팀이었는데

우리 소망팀의 3개조에 각각 2명씩 농아인이 들어갔다. 내심 나는 걱정을 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며 왼발, 오른발 박자에 맞춰서 뛰어야 잘 펄텐데 소리를 못 듣는 농아인이 잘 할 수 있을까. 결과는 우리 팀이 일등이었다.

경기 후 몇몇 농아인들 중에는 내 걱정대로 '하나 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끌려 다니다시피 뛰어가서 '발고리'에 발목이 까지기도 하고 상처도 났지만 모두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

달리기 시합은 어떠하였는가? 국민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뛰었는데 총소리를 듣지 못해 깃발을 드는 모습을 보고 뛰어야 했는데도 참가한 예바다부 농아학생들의 대부분이 1등 아니면 2등으로 끝인하였다. 하나 하나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농아인들도 할 수 있다!"

인생의 험난한 경주에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우리 농아인들도 이 사회에서 힘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다질 수 있었다.

농구시합도 참 좋았다. 비록 지긴 했지만 우리 농아학생 2명이 선수로 참가하여 건청인(정상인)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선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야 정말 농구 잘하는구나' 탄성이 절로 나왔다. 조그만 꼬마때부터 7년째 보아온 녀석들이었는데도 녀석들의 키가 그렇게 큰지, 농구를 환상적으로 어찌면 그렇게 잘 하는지 처음 깨달았다.

마지막 경기였던 1,200m 계주.

비록 아쉬운 2등이었지만, 승부를 떠나 내게는 너무도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게 한 사건이었다. 6명의 주자 중 5명이 농아인들로 선정되었다. 난 정말 또다시 감사했다. 우리 농아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소망팀의 성도들께 너무나 고맙다. 우리 모든 예바다부 식구들도 모두가 상기되고 감격하였다. 농아인들도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못들으니 까 못 달린다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우리 충현교회 소망팀의 성도들은 달랐던 것이다. 더우기 여자 주자 둘과 남자 주자



한 명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이다. 그 아이들에겐 이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농아인인 자신들을 믿어주고 선수로 선발해준 이 일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우리 농아인들은 최선을 다했고, 정말 잘 하였다. 많은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이 듣지 못할줄 몰랐을 것이다. 너무나도 잘 달렸기 때문이다.

이번 충현올림픽은 우리 예바다부 모든 농아인들에게는 충현교회 성도라는 정말 진한 일체감을 맛보게 해준 감격의 사건이었다.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좋은 올림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봉사자들에게, 그리고 소망팀과 전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랑부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사랑부 친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자! '어떻게요? 사랑부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요' 할지 모르겠다. 그러

나 그 '어떻게요?'를 위한 해답을 찾는 노력이 바로 '하나됨, 어울림'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까? 이 노력은 사랑부 교사들만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요 몫이다.

장애인 사역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소망과 사랑으로 말이다. 바로 우리 충현교회가 소망과 사랑의 제조공장이 되어보자!

예바다부와 사랑부에 들이는 사랑만큼 우리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대상이 되어 우리의 신앙에 도전과 감격을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우리의 친구들을 향해 보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예바다부의 지경넓히기

▼ 예바다부 학생들은 다른 경기에도 참여하여 소속된 팀에 성적을 올리며 다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시

하늘 또한 낮게 이뤄놓은 구름장막
안개비 젖어 피어난 천국 깃발아래
우뢰같은 함성속에 오른은 춤추며
믿음 소망 사랑 충성의 다리를 놓고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보리로 뛰리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주님의 고운 손 끝
아롱아롱 꿈을 담은 너른 운동장
황색 녹색 홍색 청색 수놓은 가을
색깔마다 승리의 미소
정이 정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안식처

무거운 잣빛 하늘아래 마음의 문을 열고
향기 진동하는 풍요의 함박웃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손에 손잡고 발을 맞춰
뛰어보자 날아보자 축제의 전도

순간순간 바뀌는 하나님의 오묘
뛰자 퍼치자 예수사랑
힘은 힘으로 솟아
평탄한 길로 날 인도하신 아버지
구름속에 헤쳐 빛속으로 함께 달리자

하나님의 축제 충현의 축제
승리도 감사, 패배도 감사
일등도 꼴찌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마음을 열고 미래를 열고
21세기를 향해 갈보리 찾아 뛰어가자

김운섭(집사, 초등3부 교사)



토·막·소·식

◆ 유아부는 10월 22일(주일)에 유아부 예배실(교육관 212호)에서 유아부 1·2부 예배를 마친 후 12:00~13:30까지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개최한다.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키우며 양육하는 방법을 함께 의논하며 강의도 듣고, 교사들과 함께 친교도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다.

◆ 중등1·2·3부는 10월 28일 연합으로 '시와 찬양의 밤' 모임을 갖는다. 장소는 갈릴리홀이며, 중등1·2·3부 학생들의 시와 원고를 부탁하고 있다.

◆ 고등부는 코이노니아의 밤을 위한 중창페스티벌, 포스터 아이디어 등을 공모한다. 기간은 오늘(10월 8일)까지이다.

◆ 청년1부는 오늘(10월 8일) 면회총회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들을 등록케 함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를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오늘 총회에는 청년부 출신 선배들을 초청하기도 하여 청년부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총회를

치를 예정이다.

◆ 청년2부는 회칙에 의거 1995년 면회 제2차 정기총회를 10월 29일(주일) 오후 1시, 청년2부 집회실(교 414)에서 개최된다.

◆ 장년3부는 11월 12일 창세기 전장과 로마서 6~16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대상은 장년3부 학생전원.

◆ 소망부는 10월중에 있게 될 성경암송대회를 준비중이다. 본문은 요일 4:11-21.

◆ 임마누엘찬양대는 10월 1일부터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자기의 좌석을 정해 놓고 결석할 시 그 자리를 비워두는 제도이다. 실시 첫주인 지난 10월 1일에는 192명의 대원들이 참석하는 열심을 보여주었다.

◆ 가브리엘찬양대의 지휘자 이영조 선생이 지난 10월 6일(금) 7시, 10월 7일(토) 4시, 국립극장에서 광복 50주년 기념칸타타 '용비어천가'를 발표했다.

◆ 루디아 여전도회 연합회는 광주소년원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출발은 10월 10일(화) 오전 7시 본당앞에서.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10/9(월) 동서울노회
· 신성종 목사: 10/9(월) 연세신학80주년 기념식
10/10(화) 동서울노회 강도사인하 목사안수 예배 설교
10/12(목) 가락시장신우회주최 전도집회 설교
2.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는 풍년을 허락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6. 각종 재난과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북한의 수해복구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변화되게 하소서.

제5회 충현올림픽 이모저모

☞ 기상대의 예보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맞기를 바라는 것이 '예보'가 갖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안맞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10월 2일(월), 3일(화) 계속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내리 듣고도 우리는 그냥 진행했다.

오전부터 간간히 비가 뿌렸지만 별 지장을 주지 않았고 점심식사 시간에는 꽤 굵은 비가 내려 오후 경기를 하게 될런지 걱정이 앞섰지만 그것도 잠깐, 비는 그치고 우리는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 경기에 임했다. 오히려 적당한 비는 운동장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일부러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을 뿌린 것보다 같은 효과를 주었다. 모두에게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 입장식을 하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했다. 주황색, 녹색, 빨간색, 청색 상의를 입은 선수단과 응원단이 하나가 되어 각 팀별 경쟁에 돌입했고 까만색의 정식 심판복장을 한 심판들이 전 경기를 잘 이끈 덕분에 열띤 경쟁에 비해 한 건의 불복도 없는 멋진 올림픽을 치루어 충현 성도들의 수준을 과시하기도 했다.

☞ 오전 중에는 팀별 대항보다는 팀 공동으로 하는 경기가 많았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름다운 세상 올리기 등. 유계부, 초등부, 소망부가 모두 참여하

여 축하박 터뜨리기를 하며 축하 분위기가 고조됐다. 콩주머니로 축하박을 맞추어 축하박이 터지며 오색 종이가루와 함께 '할렐루야' '천국일꾼' '예수사랑' '충현교회'라는 문구가 펄럭이며 나타나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올림픽의 열기는 달아 올랐다. 또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꾸미는 '충현교회 건축' 게임에 각 팀별로 새신자들이 모두 동원되었다. 종이박스로 '충' '현' '교' '회'라는 글자를 만드는 게임이었기에 모두가 열심으로 글자를 만들어 응원단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오전 게임이 끝나갈 때부터 뱃방울이 굵어져 점심시간에는 모처럼 나들이 기분으로 왔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비가 곧 그쳐 모두가 가족별로, 구역별로 모여 즐겁게 식사를 했다.

매점 운영을 한 대학부는 비가 오자 뜨뜻한 국물류인 오뎅이 잘 팔려 준비한 것을 모두 팔았다. 대학부는 세심하게 준비하여 마치 동네 가게의 슈퍼를 옮겨 놓은 듯이 많은 종류의 먹을 것을 준비했었는데 장소가 너무 넓고 각 응원단이 경기와 응원에 열중하는 바람에 기대했던 매상(?)을 올리는 데는 못했지만 그날 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김밥을 모두 처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다음번에는 더 멋진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각 팀의 세심한 준비는 응원전에서도 잘 보여주었다. 농

악대 복장에 정, 팽과리를 동원한 한국식 응원에서, 치어걸을 흥내낸 응원단, 대학생 응원단과 같은 패기있는 응원 등 각 팀마다 응원단이 특색있게 준비, 응원에 열을 올리며 경기장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어느팀 응원단은 올림픽 전날 교회에서 모여 늦게까지 연습하기도 하고 모두가 별도의 연습을 하고 나온 응원단들이어서 조직과 흥미, 임기응변 등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가 즐거운 모습들이었다.

☞ 점심식사 후는 240명이 한 운동장에 공 12개로 하는 패거리 축구, 또한 축구장 주변 공간에서는 배구, 족구, 농구, 피구 등이 동시에 펼쳐져 뭇지 모를 어수선한 가운데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각팀 임원들은 경기장 주변에 물러 각팀 선수들을 응원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시간의 경기는 주로 중등, 고등, 대학, 장년들에 주축이 되어 실제 경기를 뽐낼게 하는 경기력(?)을 보여 주기도 했다.

☞ 이번 올림픽에서 크게 돋보인 것은 예배다부 학생들. 사랑부와 예배다부의 경기가 있었지만 그외에도 예배다부 학생들은 소망팀에 소속되어 팀 성적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고 예배다부 학생들도 경쟁인들과 함께 어울려 경기를 함에 따라 무척 고무된 모습들이었다.

☞ 운동장 동편에 설치된 각 팀별 점수판은 수시로 각 팀의 점수를 발표, 온눈을 그러로 집중시켰는데 계속 각 팀당 성격이 근소한 차이로 나가자 각 팀에서는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더욱 힘찬 응원으로 점수를 올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보였다.

☞ 마치기에 앞서 각 팀별 청소제임에 벌어들였다.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각



팀별로 모은 쓰레기 봉투를 운동장 중앙에 쌓아 놓는 일을 게임으로 유도해서 힘들이지 않고 주변 청소를 깨끗이 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서 만든 대형 풍선주머니도 함께 운동장 중앙에 모아놓고 어린이가 터뜨리도록해서 어린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마지막 1200m 남녀혼성계주가 이날의 하이라이트. 잘 정리되고 정돈된 후에 1200m 릴레이. 한 사람이 200m씩 뛰는 힘든 경기에 모두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펼치며 올림픽을 맘껏 즐겼다.

종합점수는 경기점수, 응원점수, 동원점수의 세가제를 별도로 채점하여 합한 것으로 종합점수를 산정 사람팀이 1등, 소망팀이 2등, 충현팀이 3등, 뽐뽐팀이 4등.

☞ 모든 순서를 마치고 헤어지며 운동장 여기저기에서 함께 땀소고 수고한 사람들이 서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며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열심히 한 마음으로 즐기며 화합과 일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인 모두가 승리한 올림픽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대학부가 운영한 매점

◀ 무지개따오기에 참여한 각 팀 선수들

